

금요 양성 2025년 6월 20일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가톨릭 사회 교리 - 성 프란시스에서 재속프란치스칸 회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교황 레오 14세의 선출을 경축하고 있다. 그가 선택한 이름은 가톨릭 사회 교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떠올려준다. 수년전의 그의 전임자 레오 13세 (재속프란치스칸)는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셨는데, 그 회칙은 사회 문제와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게시한 가톨릭 사회 교리와 재속프란치스칸 회칙에 관한 내용을 이번 금요 양성에 다시 실어 보겠다.

*세 동료 전기*에서 다음의 글을 읽게 된다: **그 (프란시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했다. “형제들이 말로 평화를 전할 때에는 형제들의 마음에 한층 더 그러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로 해서 분노하지 않고 또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의 온화한 모습으로 평화와 자비와 화목으로 이끌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눈에 악마의 자녀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번역 출처: 성 프란치스코의 모음 : 세 동료 전기 105쪽)

<https://franciscantradition.org/francis-of-assisi-early-documents/the-founder/the-legend-of-the-three-companions/1193-fa-ed-2-page-102>)

가톨릭(보편) 교회는 **일곱가지 주제의 가톨릭 사회 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1978년 재속프란치스칸 회칙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이 주제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가톨릭 사회 교리: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보편 교회는 인간 생명은 신성하며 각 개인의 존엄성이 사회의 도덕적 비전의 기초가 됨을 공표한다.

+ **회칙 15조와 17조:** *정의와 평화와 생명 존중을 증진하라.*

2- **가톨릭 사회 교리: 가정, 공동체, 참여로의 부름**—우리 모두는 신성하고 사회적이며 사회의 일부이다.

+ **회칙 13조와 17조:** *공동체 의식- 모든 사람과 함께 하며, 가족 안에서 평화, 성실, 생명 존중의 정신을 함양한다. 남편과 아내는 세상 안에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3- **가톨릭 사회 교리: 권리와 책임**— 가톨릭 전통은 인간 존엄성이 보호될 수 있으며, 건강한 공동체는 오직 인간 권리가 보호되고 책임이 이행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친다.

+ **회칙 14조:** *[우리]는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세상을 건설하고 우리의 책임을 힘껏 완수하도록 불림을 받았다.*

4- **가톨릭 사회 교리: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 **회칙 13조와 15조:** *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 우리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정의를 촉진하는 일에 선두가 된다.*

5- **가톨릭 사회 교리: 일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권리**—경제가 사람에게 봉사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 **회칙 16조:** 노동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고, 창조와 구원 업적 및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6- **가톨릭 사회 교리: 연대**— 우리는 하나의 인간 가족이다.

+ **회칙 13조와 19조:** ...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7- **가톨릭 사회 교리: 하느님의 피조물 돌봄**— 피조물을 돌봄으로써 창조주에 대한 존경심을 보인다.

+ **회칙 18조:**... 지극히 높으신 분의 표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을 존경해야 한다.

<https://www.crs.org/resource-center/seven-themes-catholic-social-teaching-handout>

토론이나 저널 쓰기 위한 질문

+가톨릭 사회 교리가 재속프란치스칸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매일의 삶”에서 그 예를 들어 보라.

+ 어떤 방법으로 위에 언급된 회칙들을 살아 내는가?

+ 우리 형제회는 사도직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가톨릭 사회 교리를 살아내고 있는가?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의 예를 들어 보라? 어떤 것을 더 추가할 수 있는가?